쇼킹하지 않은 십자가의 무력함

(시편 113:1~9)

4.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쇼킹하지 않은 십자가의 무력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쇼킹하지 않은 십자가의 무력함'
십자가가 내게 쇼킹한 사건이 아닌 한 십자가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체감되는 정도가 쇼킹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십자가 생활화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사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있는 가치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만족이 하늘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돈 문제가 터져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장으로서 당장 어디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해결해야할 터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지지를 않아요.

요즘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초대교회의 태동과 진행초기 과정을 열댓 번도 넘게 읽으며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역사상 기적적으로 교회가 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첫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삼천 명이나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구원받은 증거로 유무상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무상통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과정이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를 보고 또 보면서 따져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사도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보다 우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역사상 많은 목사님들과 교단과 교파들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자기 신변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십 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나 대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쇄적 사건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살리셨으며,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교를 듣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도들과 똑같이 이 사건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사건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었고 이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충격적이었기에 자기 신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보다 강력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사건이 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세상은 돈을 모으고 가져야만 행복한 줄로 알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죽자 마음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심으로서 마음은 하늘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

들에게 남아있던 돈은 전과 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아야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았던 돈으로 내 신변에 관련된 일이나 자녀들을 위한 투자에만 사용했지만, 옆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보자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구원받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집과 땅을 버리고 소아시아 지역인 안디옥이나 사마리아 등으로 교인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도 이들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사건을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을 잃었다는 것, 박해를 받아서 자신의 사업을 등지고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보다도 예수님의 사건이 더 충격적이고 우선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오히려 떠돌게 된 것을 예수를 전하며 다니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시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시 모음으로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등의 절기에 성회로 모였을 때에 애송되었던 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찬양 시와는 차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찬양 시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 혹은 그 외의 위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3편은 특이하게도 여호와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은 이어서 5~6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신 일들을 7~9절에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더 낮추셔서 인간 세상에서조차 가장 낮은 티끌 같은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대우는 지금보다 훨씬 각박했습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아기를 갖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의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용도 폐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에까지도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낮추심을 노래한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부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가사 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받으신 게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외울 뿐 실제적이고 주관적 체감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체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낮은 세상으로 보내신 것으로도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아이가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함께 있던 동서가 몸을 던져서 아이는 구하고 죽었습니다. 동서가 평소에는 아주 미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마음에서는 평생 그 일이 잊혀 지지 않는 고마움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동서가 생각이 납니다.
이 하나님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역대하 6장 18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삼라만상이 있지만 다 하늘아래에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 마리 나비에서부터 세균 하나까지 다 세어본다면 그 숫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만의 하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쳐봅니다. 설령 삼라만상의 개수만큼 하늘이 있고, 그 하늘들을 덮는 더 큰 하늘이 있다고 쳐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고 일체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동서가 아이를 구했어도 평생을 잊지 못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구 위의 티끌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객관적인 사랑의 크기를 주관적으로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적인 크기로만 본다면 비할 바가 없는 거대함일진대 그것을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기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해

도 마음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몰랐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며 말 한 마디 토씨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그 어려운 조직신학을 전공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나 사도들의 역사,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보면서 주관적인 충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사건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충격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크기에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들 곳곳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빌립보서 2장 6~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비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객관적인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어서 하늘들의 개수가 삼라만상의 개수만큼 있고 그 하늘을 다 덮을만한 큰 하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이 모셔 들일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동등 된 아들을 티끌에 불과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감동도 없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이 객관적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사업장에서 자금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일 안에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것입니다. 이럴 때에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5분이 없어서 망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사업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나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단 5분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움직이지 말고 이 사건의 크기를 논리적이고 개관적인 사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암이라는 사건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반복하여 나 자신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주관적 체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에게 가르침을 반복할 때에 나의 주관적 체감의 크기는 점점 객관적 사랑의 크기로 커져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본래대로 느끼게 된다면 세상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설령 몸이 암에 걸려서 죽네 마네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난파하여 멜리데 섬에서 조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려고 하자 장작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뱀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일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그와 동등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영혼을 타이르고 설득시키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 사랑의 본래 크기를 체감하도록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죽을 때까지 충격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그렇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상 밖으로 옮길 때에 나의 손길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쇼킹하지 않은 십자가는 무력할 뿐입니다. 지금은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가르칠 때에,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성도 조금씩 눈을 뜰 것입니다. 이윽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 먹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크기를 나 스스로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가 날마다 순간마다 인생의 가장 쇼킹한 사건으로 살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